

먹은 마음을 변하지 안이하리라고 결심을 하였더라  
게모의 슈하에서 십년을 지내고 지금은 식어먼이갓터져 발서 일년이나 리력을 쓴이모  
스 초영의 진의를 비뺌에 거울되고 보듯 혼무경이라 서세가 닦으로 싸은 머리치를 뒤에  
다들 어부치면서 혜경의 얼굴을 기웃이 넘겨다 보다가 귀속말로

「요사이에 도항상짜즈음을 뒤시는가요」

〔혜〕이사이는 이러케알코누어잇스닛가 관게치안이하시다네그러나니가리정위에  
티흐야이려고더러고하는것이어먼이의성미에맛지안이하야서민망흔일이야그  
리도여피셔는항상말슴이어머님이가데일이니라워라할것업시어머님을데일  
위하야하냐고그리시지...에...다시이런말은그만두어야이갓곳히뒤우  
고마와머리가갑썩하야졌네

항면서머리를두세번쓰다듬더니그역시피곤하얏던지혜경은눈을스르스감더라  
빛을넋코쥬회로손을써스며서경티압폐가섯는무경은쥬고만함뜩경을열고머리편  
을쓰어니여손스바닥우에다눓코

「항상보아도이머리편은에엿부지참여피아져서논고말게구시는뒤우리집을바  
는(이것은권의장집에서다릴사외로마즌김준명이라하는자인디현금외교관으  
로잇는자라)외교관의쳐가되랴면어학을잘하지못하면안되니법국말을공부히

라덕국말이요긴하다고척망만하니참민망히요」

〔혜〕호...무경이도어서머리를어엇는것을보앗스면

〔무〕에이...나는슬허

항고야미를썩그릴지라도빙곳웃는모양은반만치핀장미화갓흔입살에낫하나더라

〔혜〕아...참김송즈는우리들보다일년문져졸업을히지

〔무〕더...련동김송즈말이오발서식집갓지오그런티어제리흔을히다지오

〔혜〕리흔을히서,웨

〔무〕식부모의마음에는드나,그남편이야조마단티요

〔혜〕으,히는아직업든가

〔무〕사나히즈식이하나잇지오그런티그남편이이사이에첩을둔다,무얼흔다하닛  
가김송즈의아부지가티단히분히서그런놈에게살을줄슈업다하교그만천딩으로  
다려와다지오

〔혜〕참불상도히라웨,그러케위워홀가씩도히라

〔무〕겻히셔보는사람이다분하지요찰하리씩구로되여셔식부모의마음에는드지안  
이하더리도남편의마음에는드려야홀터인디남편이그러케슬허히셔더모양이되  
얏스니참씩흔일이저오

해경은 한숨을 집흐면서

「하학교에서 한방에서 갖흔척을 너고도 졸업후에는 다산지스 방을 야엇더케 되  
는지 알슈업는 것이 지 무경이 우리는 어느새 서던저서로 떠나지 말고 함세 살  
어보세

〔무〕아이고도와

두사람은 서로 손목을 잡고 한동안 있다가 해경은 빙긋웃으면서

「이러케 누어잇는 냇가 별생각이다 나 지이제 몇히 잇다가 우리나라 가어느나라 하  
고 싸흔을 허서 승전을 하면 무경이 읊바는 그새에 의부디신이 되여서 강화담관을 하  
고 집의령감은 룽군디신이 되여서 수십만디 병을 지휘홀티이지 그새에 우리들우무  
얼굴 누적십조그나 들고나갈가히도 몸이 잔약히서 안될겜. 오호.....

우숨뭇해해경은 기침이나 서을 혼편 가슴을 움켜잡더라

〔무〕너 무리악이 할 냇가 안되겜소가 숨이 압호오

〔해〕잔혹기침이나 면이가 숨이 울녀서 견딜슈가 업지

능면서 해경의 눈은 거진 < 넘어가는 서창의 히스 그름조를 바라보더라

● 데이십륙회

강파천의 안샤랑에서 봉남에게 무한한 면박을 당하고 감노이불감언으로 분흔것을 깨

우참고조그의려관으로도라 잔조정위는 그날 밤 브터 불과 닷셋만에 갑작이 어느진위  
디위관으로 전임이 되엿더라

사람이 한세상 지낼씨에는 하는 일마다 그릇되고 하늘이 특별히 하나하나 만위위하야 비  
석흔운수를 갖다 씨엇는 것갓하야 소위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익운이 텃하흔씨가  
적어도 한두번이 안인법이 라 거년 브터 조정위는 이익운의 힘로 드렸는 디이씨서지  
도 용이히 이익운의 힘로 다지 날희망이 업도다 해경은 봉남에게 세앗기고 무슨장스  
에 착수하얏다가 도처에 랑피를 하고 무던디 글을 어더 썼더니 쿠상흔수치를 당하고 어  
린아히로 보앗던 봉남에게는 여디 업시 존욕을 당하야 데일갓가 온천척이라던 리정위  
집과도 길어 실어진고로니 종에는 립신하는 첩경으로 알고 죽어도 자안이 할리라하  
얏던 원수부의 위치서지 일언반스 말흔마티 못히 보고 박탈을 당하야 이씨서자쇼와 말  
이나갓 처성각하던 진위디의 한사관이 된 조정위는 아제다시 거역할 수도 업고 썩구려  
저도 말뚝너임식을 슬허한이 하면서 투격 < 조련하는 마당에서 제그림조를 말브니  
이익운은 조정위를 무한히 격동하야 조리로 무슨 일을 당하야서는 조곰도 외면에 낫하  
너지 안이 하고 락락히니 몸을 가지던 조정위로 하야 곰이 경우를 생각홀씨마다가 숨에  
싸여잇든 분하고 원동흔마음이 불스길갓치 너러 남을 스스로 세 닷지 못홀너라  
올나가면 반다시 엇을 립신하는 사다다리에 발을 걸치미 한총 두총을 올나 잔씨에 갑

작히 남의 말스길에 처인것은 지금 조정위의 신분이라 누구가 말스길로 찾는가 조정위  
 는 봉남이와 언힐흔 뜻으로 하셔 원슈부의 어룬되는 모양관이 왕부장과 막역흔 친고라  
 혼즉 필경 왕부장의 손을 빈것이 다 의심하고 또 지리로 전정등스에는 링락하든 봉남이  
 가 삼천원짜 닭에 가령스 일위조를 헛다 혼들그려 케성넬리가 업는디 헤경이가 왕일  
 을가지고나를 봉남에게 다춤소흔이 안인가 의심하야 생각하교 생각할슈록 실정그런  
 듯하야 그의심이 분혼마음을 더욱자아 님의 헤경이 썩앗긴분심, 공명길을 쓴어 노은  
 분심, 락망, 불평, 질투, 여러가지 악감정이 왕부장과 헤경과 봉남에게 물퍼붓듯하교  
 불스길갓치너러나는지라 항상조 그의 슈단을 자랑하던 조정위도 도쳐봉피흔 남아에  
 심신이 산란하야 창즈에가득 혼원독을어디디하야 풀어헤칠길이 업는고로조지—조  
 철구라하는한몸을이세상에 업시헛스면하는 생각아불연중나는지라

복보수엇더케하면복보수하는방법이 업슬가 세사람의 마음의운사름에게디하  
 야는피를빠라먹고고기를한점버혀입속에너어즐근—너흐릿스면하는 생각이라  
 복보수엇더케하면복보수하는나엇더케하면더왕부장과라정위의두집을희일이되  
 야셔날어가게홀디되포를발견하교조지는아못조록위험흔것이밋지안이케원거리  
 [遠距離]에서々디되포스줄을잡아다려니게의운놈으로하야곰가슴이터지고창즈  
 가찌여지고싸가부러지고두골이싸에골너가는헤경을보면서상쾌히한잔을마실가

이것은정월브터밤낮업시조정위의 뇌슈속에서왕리하는문데라  
 미화가눈이되야셔러지는숨월망잔이라어느날조정위는어느친고가디방관으로잇  
 다가서울로전임되야올나오는것을영접할츠로남디문명거장에나갓다가맛춤섭오  
 류세된처녀를다린키큰부인이부인디합실로나아오는것을의외에맞는지라

「웬, 일이 심닛가」

하는부인은곳왕부장에부인출즈—라별안잔변하얏던조정위의얼골은그부인의얼  
 골을치어다보고다시변하야왕부장에게나헤경에게나합협이잇지조곰이라도더부  
 인하교야합협필요가잇스라하교발서결심흔후웃는낫을하교공순히인스하며

「춤오리가 뵈옵지 못하얏습니다」

〔부인〕웨그리한번도안이오셔요

〔조〕아무케하셔도한번가뵈옵겟다하면셔여러가지맛흔직척이잇습고항상분주하  
 셔그릿습니다그런디오늘어디를가셔요

〔부인〕에—잠시간강화셔지갓다오랴구요그런디조정위썩셔는엇의를가시오

〔조〕안이오셔는잠시간치구를영접하려나왔던일이올시다그런디강화도는한양하  
 러가시는가요

〔부인〕아이고이셔셔지아지못하셔는가보구려병인이강화도가잇지요

〔조〕아니 뭐가 병환이나셨어요

〔부인〕혜경이람이다  
맛춤요령소리 가나 자 사람은 밀물 갖치 밀너와기 찰구(改札口)로 나가는데 그쳐너는  
즈귀어먼이의 옷소미를 잡아흔들면서

〔어먼이 시간느 저 집니다〕

조정위는 손빨으게 춘즈부인의 손에 들었든 잡냥을 밧아 들고 할세나아가면서

〔그것무슨 병인가 요미우디 단히요〕

〔부인〕아마 폐병이 되얏나보아요

〔조〕폐병이 부족증이

〔부인〕예이 혈담을 몹시 비앗기로그만 일전에 강화별장으로 보닛지요 오늘날은 닐가 잠  
시간가 보라고 갑니다

항면서 조정위가 들렸든 잡냥을 도로 밧아 쥐며

〔곳단여 오갓습니다 잇다 금늘너 오시구려〕

항고상등실로 드러가는 것을 전송하고도라 설썩에 조정위는 반만치 웃는 낯을 띄오디  
라

● 데이십철회

의원이와셔 돌적마다 분명히 말을 안이 흘지라도 증세가 현저히 침중하야 지는 것을 보  
고 여러가지 약을 쓸지라도 다시 효험이 업서 날마다 골슈로 드러가는 혜경의 병증은 삼  
월 초성부터 확실한 폐병에 증세로 드러가더라

즈귀의 긴장흔것을 자랑하고이사의 절은히 들의 잔약흔것을 자랑하야 물가라 먹  
는다는 말이 귀에 동풍지나가듯하던 것이어먼이도 현저는 압박셔 혜경의 혈담비앗는 것  
이 한두번이 안인것을 보고는 마음이 놀나 올썩안이라 전염된다는 말이 더욱 두려워셔  
의원이 권하는 디도 상당흔간호부들안동하야 혜경을 강화영종도에 잇는 왕부장의 별  
장으로 보닛였다라

폐병에 혈담씩지 비앗흐니 혜경이는 망망무제 혼별판에서 혼조가는 형식이 방장 처사  
직갓흔 소낙비가 썩러질듯흔시샘은 구름떼가 갓가워오는 것을 바라보는 마음과 일반  
이라이 썩나모면 할가더 썩나모면 할가하다가 필경우리가 우르르하 고 번기가 번썩  
〈하차 광풍이 나러나고 티스 줄기 갓흔비가 건령슈거우르듯하는 망々 무인지경에  
섯는 혜경은 어서이 몸을 썩여 운권던 청흔 디로 갓쓰면하는 생각분이다

숨월어느 날은 몸이 현저히 썩고로 심심과적으로 화병에 썩을 썩으려하야 쓸에 닐  
려 향늬가 물선 / 하는 흥미가 지를이 것더 것골으다가 갑작이 가슴이 답답하고 현취  
증이나더니 부지불각에 권하고 폐부들 썩는 선디 피덩이를 비앗홀그썩라셔

「아아, 인제는 그만……」

이러하고 동시에 어느 북망산에서 온 듯 허허 무덤의 그림자가 보이는 듯도 아아, 그만사름이 죽는가! 그전에 이 세상을 고성으로 지낼려는 것이 무슨락이 며 죽는 것이 무엇이 이석하랴 하고 생각할수록 도잇거니와 지금은 도티체사름의 목숨이 앓가을 썩외에 더욱니 목숨이 앓가워서 백년천년이라도 살고 싶흔혜경은 속절없음을 생각할수록니 몸으로 병을 이길 마음이 곤절하야 썩썩로 괴운업는 것을 억지로 진당하야 나려나서는 조그가의 원인체하고 병치료를 하려들더라

불과 이삼일 동안이면 왕리할 곳에 있는 봉남은 한가할 틈을 다져자조 < 왕리하는디 천당압우지의 편지, 이모, 무경, 의문병하러오는 것이 근칠씩가업고 별장에 는 거년 녀름에 리정위집을 썩는 이후로 오리적조하얏던 유모로과가 다시 맛나기를 위하야 병 난것은 이쳐러울지라도 일변맛나는 것이 열마큼반가워서 혜경을 위로하는중, 이젠 보다갑절이나 열심으로 모시는도다 인조하고 공순호로과가 열심으로 섬기고 불추위 가오히려혹독흔서울을 썩나, 니몸을 강화도히중더운공기에던진혜경은 날마다 닳듯흔공과를 마시고 날마다 껏해모신사름의 위로하는 정을 밧어즈연히 심신이 화창하야 졌더라 물을 가라먹은지가 불과수무날에 혈담도 좀긋치고 기침노 좀감하야 한주일에 두번씩 서울서 나려와진찰하는의원도 꽤 초하얏다고는 할슈업스나 병세가 더하지

안는것을 갖거하야이다 음부터는 심화를 니지 말고 편안히 치료하게 되면 아조 꽤 초할 소망이 있다고 말하더라

● 데이십팔회

도성안의 뜻은 아직 졸일다 하질라 도일과가 닳듯흔혜변에는 도화리화가 반만치 뛰 고먼산에 아조랑이가 아득흔삼월년회간, 어느도요일이라 그날은 앓춤부터 련하야 오는 봄비에 바다이나 산이나 다 만한빛이 되어 갖득이나 긴 봄날이 더욱 긴듯흔디져 녀 석부터 비스줄기가 굴거지고 바람시지 몹시 불어 산스덤이 갖치밀어다가 영종도바외 에 부디치는 물스결 소리는 천병만마가 뛰노는듯하야 감々흔히 변스집에는 등불스하 나 도반 짝안이하더라

왕부장의 별더에는 오늘날은 오전에도 착한다 는던 보가 왔는디 부산서 불일이 잇서 지테 된봉남이가 야반에 풍우를 무름쓰고 드러온지라 죽시옷을 가라 입고져 녀를 먹은후에 탁자에 의지하야 편지를 보고잇고 혜경은 마조안자고 혼주머니를 깎다가 썩々로바늘 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다가는 우스며 풍우소리에 귀를 기우리고는 가만히 무슨 생각 을 하는디 할부로들어 언즌머리에 는 잉도화한설기를 입잇는 처로 썩쟈더라 두사름의 사이에는 탁자가 잇고 분혹석으로 된가스를 덥흔남푸는 기름빠라 먹는 소리가 썩々 썩々 찌르々하는디 그것헤는 빅화병에 썩존잉도화한가지가 눈갓치 엉기여 잇서 묵々 불연

하는 모양. 다정호사람이 반기는 듯하며 풍우 소리는 여전히 문밖에서 디동치듯 흐다  
봉남은 편지를 마라치우며

「아부지도 미우걱정하시느구 언더런지 리일은 잠시간 서울을 갈터이니 낮가약 현서  
지단여을 받게」

〔혜〕 리일 서울을 가서 요일과 가이런터이며 남이 기다리실터이지나도 가고 심허

〔봉〕 혜경이가 천만부당 할말이지가 다니어 터를가…… 지금은 이 섬에 귀향은 줄  
로 알고 잇스우하……

〔혜〕 호…… 이러케 귀향사 리홀터이면 한평생이라도 도와령감담릭잡수시구려

〔봉〕 담릭를 먹고 심허하는 것갓소 좀그만 두겟소그디신에 오기 전날고 가는 날에는  
이들치를 한접에 먹으릿가하……

〔혜〕 그러면 이표훈과 조나 잡슈어 보시오

〔봉〕 그것은 잠먹겟소아 무경이가 가져온 것이 겟지 그 것은 무엇이 오아 조씨씨구  
러

〔혜〕 이 사 이에 는 히가너 무길어 서 견딜 슈업기에 어머님께 드라라고 만드느 것이야요

〔봉〕 몸이 불편한터 그것을 언더케 만든단 말이오

〔혜〕 안이 오아 무일업서 요 놀면 심심과적으 로 하릿가 아이고 지금은 아 조정신

이번씩나니 좀이 르키워 주구려 이리 하고 잇스닛가 조금도 병안갓지안치요

〔봉〕 의학박스 리봉남이가 겟헤 잇거든하…… 참이 사 이에 는 혜경씨의 얼굴이 미우  
도와졌느겔

이 섬에 건넌 방에서 유모로과과 자를 정반에 밧쳐 두손으로 밧들고 오더라

〔로〕 바름비가 터 단롭니다 령감마님이 안이 오셨드면 마님께 서오느날 밤은 한잠 못주무  
섯지 오동안닥아 싸도 가시고 간호부씨다 갓시닛가 오늘은 언더케 져져 할실번히

서마님

〔혜〕 오늘 밤 겟흔씩에 비를 타고 잇는 사람의 마음은 언더덜가요, 히두타고 잇는 사람을  
싱각하는 사람이 더욱 가련하저

이 섬에 리봉남은 육군사관의 견습을 맛초고 다시 히군견습을 지원하야 일본회슈하언  
의군함의 견습성이 된고로 향상군함을 타고 잇는터이라

〔봉〕 이싸저스바름에

하고차를 다마신후과조두세기를 한입에 너어우석 먹으면서

「아! 이싸저스바름은 실로우습지더상히근쳐썸가서이들이나 사할을 포풍우을  
맛나고 보면 참위험하저사천명씩돈되는비가 한삼사십번이나 기우러지고 산덤이  
갓흔과도가 갑관우호로능실 넘어오며 썸겨々々 흘적에는 참조치안은겔」

바람은 더욱 밀렬하고 구름은 모퉁이를 찢어 엮는 것 같치 못함을 후려침이 혜경은 눈을 감고 유모로 파는 몸을 벌벌 떨더니 세 사람은 리약이가 한동안 쓰러지고 풍우 소리만 뒹뒹 울 뿐이라

[몽] 자—인제 그런 리약이는 그만 돌지어다 이런 밤에는 등스불이나 밝히고 자미 있는 리약이나 흘 것이 지여기는 형슈하보다도 로혀싸 뜻하야 발서이러 케잉도 화가 뛰었네

혜경은 빙화병에 쇠젓든 잉도 화 입을 가만 가만 어루만지며

[이것이 오늘 아침에 하라 밤이 산에서 억겨왔는디 아조고와요—그런디 이바람비에 산에 있는 것은 그만 다 썰러 지겟네 참니가 이왕 학교에 단일적에 누구 흘레 드르니트가 그런 글귀가 있다 지요 아이고 무엇이라던가 오—야리 풍우성(夜來風雨聲)에 화락지다쇼(花落知多少)라던지 어젯밤 풍우스 소리에 싹뻗러진 것이 알과라 얼마나 되나뇨하—참넷사름도 나 처럼 싹을 사랑하던것오야

[몽] 혜경씨는 참문장일세니가 또 넷글을 하나 월 것이 나드러보라 오화유중기일(花有重開日)이나 인무경쇼년(人無更少年)이라 싹은 다시 뛰는 날이 있슬지라도 사름은 다시 쇼년 될슈가 업는 나라 하는 글이 잇지요

[로] 아이고 정말그럽습니다 참령감 마님의 시는 글이 이 할멈을 두고 진글인가 보아요

—마님

[혜] 할멈이 그 글 질적에 나기나 히던가

[몽] 하—

리약이 중동이 쓰어지자 한 번 식들너치는 풍우스 소리에 파도 소리까지 겹쳐 집이 큰바다에 뜰비와 갓흔디로 파는 차스물을 장만하기 위하야 너러서며 혜경은 거드랑이아리 끼고 잇는 데온기(體溫器)를 잠스 간등스 불에 빚치여 보고 오늘 밤은 다른씨보다 현저히 신열이 업다 하고 봉남에게 한번 보이며 서롱에 다넛코락조우에 노인 잉도 화를 한동안 물썩름이 바라보다가 흘연히 빙긋우스면서

[발서 일년이나 되었지 마는 다 생각이나요 그씨에 마차를 타고나 오닛가 집안사름들이 다 전송을나왔기로 무엇이라고 하고 심흔말이 잇섯지 마는 종리말이나 오지안 이히요 오호—그다음에 황참의 다리를 건너닛가 발서히가 젖는디 맛춤보름날 밤이라 동구런 달이 올라왔시오 그다음에 박석고기를 넘어가닛가 맛춤 잉도 화가만 발하얏는디 마차속으로 눈갓치 썰々 날어드러 오지오 머리에 싹입이나라와 붓흔것을 테여 버리라고 하는디 동안아주 먼이가 떼여 주섯지

봉남은 탁자에 다리를 받치고

[발서 일년이 되었나 세월이 빠르기도 하다이러 더러 하다가 회흔레 지니 깃네하—

그씩혜경씨의삼향든모양을보드면하하……지금씩각히도우습지웨그러케삼향든지

〔혜〕호……령감은나보다한층더삼함디다호……손이떨녀서초례스잔을잡을슈가업던대요

〔리〕약이향시는말씀이,아조우슈음니다

향교로과논빙곳／＼우스면서차관을가지고다시드러와향는말이

〔할〕말도이러케심신이화창하여본적이업습니다두분이함께이려고계시닛가작년에평양갔든것과일반이야요

〔혜〕참평양가셔는잘놀았지요

〔봉〕고사리키던성각향오,엇던분네의발은덕단이도무겁기도향더니

〔혜〕령감이너무쌀리단이사닛가그러치요

향고빙곳웃는다

〔봉〕말서고사리킬씩가되어오네혜경씨어셔나셔,또고사리키러안이가려오

〔혜〕호……그씩씨지애야,단딩나지요

●데이심구회

그잇흔날은운권던청야어제밤포풍우가언제잇던가심더라서울은오후에가기로

작덩향고오전은일기가싸뜻향고바람이잔잔흐승시를향야운동을향차향고봉남은혜경과갓치별장뒤스문으로나와여기더괴웃득득々々향슬나무사이의모래언덕을지나히변으로나왔더라

〔혜〕일기가이러케도와질줄은몰나지요

〔봉〕춤일괴듯소월미도가싼향게보이구려서로건너다보고리약이라도할만향뒤두사람은마전향듯향모리를말섞오늘날잔풍향승시를향야구무질을향라고씨드는데부들파건넌편바다가에서맛술을싸는향히들바라보면서점々사람업는편으로것치가다가혜경은우연히성각나는모양으로

〔여〕보오,더－조정위는엇더케되었나요

〔봉〕조정위－괴악향놈향향니일즈이후로한번도맛나지못했지마는－웨무르시오혜경은조곰더씩각々다가

〔안〕이오,출우수운말이지오마는잔삼함에조정위를보앗기,말씀이오

〔봉〕삼에조정위를보앗서－

〔혜〕예－삼에조정위가어머남향고무스리약이향고잇는것을보앗지요

〔봉〕하……다심도향저무스리약이를향던잇가

〔혜〕무엇이라고향는지는알슈업스나어머님이무엇이라향시키고는머리를씩덱



항시되다 | 무경이가 언제 조정위하고 강과천하고 함께 가면서 니약이 하는 것을 보  
았노라 고니 약이 하더니 그리서 그런 꿈을 꾸었나 보아요, 여보 조정위가 우리 집에  
투족 할 일은 만무하지요 |

(몽) 그럴리가 업겠지요, 어머니도 조정위의 일을 패심이사시는더이닛가  
혜경은 부지불각에 한숨을 쉬면서

「정말, 이런 꿈을 병을 어뎛스니 어머니도 오죽 귀치안어 흥실년지」

몽남은 불연중 가슴이 딱딱하다, 병인에게는 그디스 말을 안이 하엿지만 혜경이 침  
중하야 이별장으로 온후로는 몽남이가 집에나올척마다 모친의 괴석이 듯치안이 하야  
전염될 녀가 잇스니 아무쪼록 강화별장을 먼멀리 하라 구사지경게 하고 각식뒤스공  
론을 하던 뜻혜는 혜경의 천덕까지 구두에 오르나리며 좀잔히 보라고 하다가는 쳐즈만  
비호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병신의 늑이라고 꾸중을 드른 일도 이왕한 두번이 안이라

(몽) 하…… 혜경씨도 잔걱정이 만쿠려엇지 그럴리가 잇나 잘도 섭하야 서나야 서  
리년 봄에 논아 무케라도 틈을 타서 어머니를 호고 셋이서 작년 봄처럼 평양디 성산에 가  
고 사리를 키야지 | 말서여기까지 왔네 미우 피곤하지 천천히 도로 가볼가  
두사람은 바다사가 흐로 주춤 / 가다가 압페절벽이 막힌 곳에서 머춤섯더라

(혜) 더절벽우에 서지을나 갑시다 안이 오조곰도 피곤치안소서 양사지라도 가겠소

(몽) 관게치안어, 그러면 그 목도리 주우, 바외가 밋그럽소 단히 붓잡으오

몽남이는 혜경이를 붓들고 바외우희, 외발자국 난 길을 가다가는 쉬고 가다가는 쉬다  
가한사 오십보를 가서 쉴새 흐르느 폭포아리 나르러 더더 폭포것혜는 불당 비슷흐음막  
이잇고 여기 더기 박히고 송나무는 버루에 가겨 구루걸녀 비스름이 바다스물을 너려다  
보는듯하더라

몽남은 바외를 툄 툄덜고 목도리를 방석삼아 깔더니 혜경을 거괴안져서 쉬게하고 조그  
도 두다리를 걸쳐안으며서

「일과가 선동이 잔잔하다」

바다는 맑은 거울을 싸라듯 하듯 며람물을 풀어 써언듯 흐늘은 구름한 덩업시 바다  
이나 하늘이나 다만 한빛이 되고 먼산갓가 온산은 한가하고 긴 봄날에 조는듯흐지라

(혜) 여보오

(몽) 웨그리오

(혜) 니가 나야 보릿가 이몸슬 병이

(몽) 무슨 말이야 낫지안코 엿덜나고 낫구 말구 덩령 낫지

혜경은 남편의 억기에 가의지하면서

「그리히 두영하 낫지안것거니 생각이 잇다 금나지오 우리어면이도 이왕이 병에 도

라가셨다는지……」

〔봉〕혜경씨 왜 오늘은 그런 말을 하오던 영났소의 원도 낫는다고 말하거니와 안습더닛가여 보오 혜경씨 그러치오어면 이는 이왕그 병이 든지 모루겟소만는 혜경씨는 아직 수무 솔도 못되 지안엇소더구나 처음 시작이닛가 아무려야 도낫소, 더, 우리 집 친척되 는 리경남이라는 사람은 을 혼편 폐부가 업서져서 의원이 흘슈업다고 잔 후에 도열다 섯히를 더 살지안이 하얏소, 아무려도 낫겟다 하는 마음만잇스면 괴어히 낫지오낫 지안는 다는 말은 혜경씨가 나를 사랑하거니와 지안는 말이 지나를 사랑할것갓흐면 괴어히 날더이야 낫지안이 하면이 사람은 엇지하나

봉남은 혜경의 왼손을 잡아 조그 입살에 다갓다티더라

두사람은 한동안 말이 업더니 월미도에 서나오는 듯 단비 한책은 바다우흐로 밋그러져 가는듯흐티

혜경은 눈물이 핑그르르돈눈에 웃는 빛을 띄오며

「나지오던 영났지오——아々々 사람이 왜 죽노천년 만년이라도 살고 심흔티 죽으라 거던들이 함께——예——들이 함께요——」

〔봉〕혜경씨가 죽으면 나 혼조살슈가 있나

〔혜〕정말 아이고 도와들이 함께——그러히 두어머님이 계시고 나라 일을 하시는티 그런

생각이게 신들엇더 게임의로 하실슈가 있나 그씨에는 나 혼조몬져가서 기티릴슈박 개업지——니가 죽으면 잔혹생각이나 하야 주셔요예——예——여보

봉남은 눈물을 씻고 혜경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시그런말은 그만두고 어서 잘도섭히서나야지요여 보오 혜경씨, 들이오티 々々 살다가 회흔례 잔치를 안이하려오」

혜경은 봉남의 손을 두손으로 박삭글어 쥐며 몸을 락——의지할씨에 더운 눈물이 봉남의 무릎우흐로 썩러지며

「죽어도 나는 령감의 부인이 지오병이나 든지 죽던자니 지천만이 왜 자할지라도 몇 백년 몇천년까지라도 나는 령감의 부인이 지오」

● 데슴심회

남티 문딩거장에서 혜경의 병드러다는 말을 드른씨에 조정위의 알골에 웃는 빛이잇던 것은 빅게 무척하던 피군지장이 한묘척을어더싸흠을다시 시작하는 시기가 도달하얏 다하고 위선마음으로 승전고를 울리는싸름이라 불공던 지슈갓흔리 정위왕부장두 집의 큰관제는 실로 혜경에게잇고 혜경의 폐병은 불슈다언하거니와 하나님이 특별히 쥔털 구를위하야 북보슈홀기회를 주시는것이로다 병은 전염될씨안이라 의례히 죽는병이 오봉남이는 집에잇는날이 별로 업스즉식이면이 며느리사이에 리간탕한 협만드려드

리면 손스가 락하나 썸적안이하고 파렬케하기가 무엇이 어려리오 일되기만하면 나는  
 물너안저셔더의씨리서로자루를찌즈며죽는다산다하느니라 구경하리라 하느  
 것이 조정위의성각이라 봉남의조친의성품도 잘알고 봉남이느니라 게티하야 그처럼  
 지라도 봉남의조친은니게티하야 그러치안은 줄도 잘알고 비록너나 혼만치 못할지라  
 도 봉남이보다 경력이만타하야 무슴일을의론도하며 부탁도 할만하지하느니라 봉남조친  
 의의향도 잘알고 또 혼결니 친척이만치 못하야 다른스름을한번건디리고느니심으로  
 돌오혀 후회하느니라 봉남의조친이 봉남의부부를위우합당치 못하야 아모라도 조  
 의편이되얏스면 또 혼줄로싱각하느것도 잘아느고로아직군스를준비하지안이하엿  
 슬지라도 그작전계획이반다시 성공할줄을예타하얏더라  
 흥중에님의계획이잇는조정위는다시강과천을써여간혹리정위의집의니용을람지  
 케할겸또는조기가이왕일우다 후회를하고 지금은천천기과 혼양으로 변명케하다가  
 혜경의병이두달을지니도차도가업고 봉남의조친의괴석이아조듯치 못하느니라 말을  
 드른스월금음뻘봉남이도업고그집청직이되는던중모도가스로인하야식골잔들을  
 다서어느날밤에조정위는오리발스길을긔엇던리정위의집에를갓더니맛츨봉남의  
 조친이홀로봉남의편지를압해다듯코무슨싱각을곰곰하던츠이라  
 [로부인] 참엇더케할도리가업고나돈만쓰고두달석달을지나도조금도동정아업스

니민망한일이다 이이조철구야이런씨에는갓가온친척이라도잇서셔의론할씨나  
 잇스면조갬더라 봉남이느아지도철업느어린히모양이구엇더케하면도 혼년지  
 [조] 참그렸습지오아주먼이저도실상이러케올쳐지가 못됩니다마는이왕신세가티  
 산갓흔아져씨나아주먼이를보옵던지또봉남을보기로셔엇지제가잠잡고보고잇  
 슬슈만잇습닛가실상말하면아주먼이딕의한큰일이올시다그리셔벗그림을무름  
 쓰고왓지요 | 촌페병이라느것이무셔운병이올시다아주먼이도티강짐작하사갓  
 지오마는너편네병이남편에게전연하야한집이멸망하느일이종종옵니다저도봉  
 남의일이미우걱정이오니아주먼이씩셔좀주의를안이하시면큰일이남니다  
 [로] 그러타나도그것이의셔워셔강화도에느가지마라 < > 하고봉남이다려늘말하  
 지마는일향듯지안이하닛가엇더케하느니네이것을보아라  
 하고편지를너보이면서  
 [의원]이엇져니간호부가엇져니하고제딕의말썬안이나  
 조정위는빙긔우수면서

[그리도아주먼이그것이야엇더케혼닛가부부사이에금슬조흔것이야엇더케혼  
 닳아가모리병이전염되는일이잇다래도봉남이가그럴듯은하저오  
 [로] 그러키너피네가병이났다고부모에게불효하느법이야어디잇디

조정위는지연히탄식을하며

「일언이폐지하고정말큰일났습니 다봉남이도안희를잘맞나셔아주면이췌셔도좀  
얼마큼락을보실만하닛가공교히이런일이싱겁니다그려나아주면이딕의  
쇠하고흥하는것이이췌가안입닛가나그런티봉남이췌가에서는아모스말도업서  
요」

〔로〕호—말이무슨말이나그기성췌췌먹을게모라는것이물췌이나조곳식가지고와  
셔는알낭—할췌이지권의장의집에서는두어셔너번오기는왔더라  
조정위는다시탄식을하며

「이런췌에는그친뎡에서몬져설도하야좌우간조쳐할것인티병드췌을너여맛겨  
늦코시츄이췌고잇스니엇지하잔말인지오그러나이세상은다저만리롭게하려드  
닛가츄적정ैया아주면이」

〔로〕정말그럿더라

〔조〕그것은엇지되얏던지데일거정되는것은봉남이지오만약그병이전염이되고보  
면그만리츄장딕은멸망이지오—그럭더럭하다가어느췌에전염되는지아지못하  
는것이올시다그럿라할지라도부々사이라아주면인들엇지하는슈잇습닛가  
〔로〕그러기도하다

〔조〕그래도그냥두면아췌면이딕의큰걱정이구요—

〔로〕그러쿠말구

〔조〕히들하쟈든티로만하는것도부모의직척이안이구요잔혹히들을올리는것  
이도로허사랑하는일체도되구요그런티절문히들은한번마음을결단할것갓다  
가도조곰지니면또마음이변하는것입니다

〔로〕그리여

〔조〕조곰볼상도하고마음에미안할경우가잇다흔들집안이떨망하는티야비할슈잇  
습닛가

〔로〕참그럿치

〔조〕더구나만일에히라도났코보면그런걱정이더업지오

〔로〕참니말이그말이다

말췌마다니므음에합당하야조초지췌이머리를췌데—하고올케너여든노로부인  
의스식을보고조정위는니심으로무름을치며그췌하약이잠스간사이에약효가나  
는것을볼췌안이라봉남의조친의마음뵈에이췌췌한알이췌려져잇서엇지하면  
호가하고조저미결하는흠뎡이속에뭇쳐잇다가그흠을췌치고움이다나와췌이피  
며얼미가미치기췌지는다만일조가천연할걱정이나그일조도그다지오리천연치안

이 할것을 세다 렷도다

성질이 원티 포악지안이 흥봉남의 조친은 혜경을 어디서 지던지 위워 흥은 안이라 혜경은 가 풍과 교육의 다른것을 불게 하고 고식이 허니 유견을 바리고 고식이 먼이와의 합흥도 록 하고저 하는것은 그식이 먼이도 알고 엇더히 혜에는 의향이 여합부절하게 조와 갖흔것을 감격하야 임으로 는 부짓기를 래스 로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나가이왕에 식집사리 할씨에는도 더히 더만 큼 못하얏지 않고 혼조싱각 할일도 잇섯도 다 그러나 혜경이가한 달이나 시름 / 알은 후에 아 조폐병이라는 몹슬 병의 일흥을 엇고 현저 눈압해서 피덩이를 비앗는 것이 뒤셔 올썸안이라 그병에 적지 안인 돈을 쓰고 한 두달을 지날지라도 현저히 초도 잇슴을 보지 못함에 밋쳐서는 이상 흥싱각이 흥중으로 소사나 음을 세 닷지 못하야 이리싱각 더리싱각 하다가 일종 불쾌 할 감념이 흥중에서 폭발하야 필경 씹이 피고 열리가 밋치는 디경에 서지도 달하얏도다

조정 위는 분명히 봉남의 조친의 한나 상 흥싱각 든것을 수식하야 간혹 초조가 서는 아모의 소업는 듯시그 립과 그 뜻에 서 뜻함바름과 단비를 주어 점점 그나 무를 비양하 면서 결실되는 씨를 기다리더니 봉남이 업는 동안에 봉남의 집을 출입하 다는 말이 밤에나온 씨는 조정 위가 밋서 일을 다 밋들어 늦코 발을 세여 강과 천에 게 더하야 불구에 일장 활연 극이싱기라 미리고 하고 그 계획이 성공 흥경축의 술잔을 들더라

● 데슴십일회

오월 초싱에 리봉남은 그라고 잇는 군함이 장 초오항(吳港)에서 좌세보(佐世保)로가다가 북해도 근처에 서거행하는 련합함티의 연습을 구경 할터 인즉 불가불스 오십일동안은 집에 도라오지 못 할터이라 잠시 틈을 타서 집에 도라왔더니 근처에는 아금너에 무엇이 끼여 잇는 것갓차야 무씨에 올지라도 고식이 못치안이 하던 그 조친이라 서그날 밤은 희한히 웃는 낯을 하고 목욕통에 불을 피우게 하며 봉남이 가 평싱 잘먹는 닭전골 등속을 손수 권하는 고로 원티 조고 만일에는 관념안이 하던 봉남이 도거동이 이전과 다른것을 이상히 녀이나 부모가 사랑하는 디갓거안이 하는 조식은 법이라 일즉히 부친을 여환후로 보터 부조의 정의가 모친에 게치우 친봉남이는 모친의 괴식이 이전과 다른것을 마음으 로 갓거하야 희々 락락히 저녁 밥을 먹은후에는 목욕잔에 들어가서 쥬류 / 오는 비스 소리를 드르면서 인제는 혜경이가 어서나 아서여 괴셔나 오기를 기다리게 되얏스면 하고 그날 단여은 강화도 별장의 형용이 눈압해 암암하더니 심신이 쾌활하야 목욕탕을 나와서 종년이 입혀주는 평복을 아무러케나 걸치고 열원 연가 진을 혼손으로니 마전을 부비면서 모친의 계신방으로 드러가더라

종년에 게 여기를 주물너우면서 녀변 죽긴디에 성천 초를 피우는 모친은 눈을 들고 (오! 밋서 목욕을 하얏느냐 호... : : : 너의 아부지가 그러케 목욕을 날너하 시더니

라고, 그방석우에안저라이이옥섬아차좀만드러온  
항고친히이러셔々찬장속에서과즈갑을녀어뜻는다  
봉남은

「너가오늘은손님갓구려」

항고염원연문임으로프른연기를녀불면서빙긔웃더라

〔로〕이이봉남아너참잘왔다―일전브러좀의론할일도잇기로편지를히셔좀왔다가  
라고하라든츠에막왔스니잘되었다강화도단여왔깃지

강화도에자조〱가는것을모친이도와안이하는것은아나세여보시는듯이말씀하  
는디거죽말로디답할슈업서

〔봉〕예―잠간단여왔지오이즘은신상이관게치안은듯함데다어머님을모시고잇  
지못하노라고미우걱정하는모양입데다

〔그러하리라

항고로부인은봉남의얼골을릭々히보다가맛춤중년이가지고오는차스징반을밧아  
노으면서

〔옥섬아너는더라로가잇거라고, 그문을씩닫고〕

● 데슴십이회

손수차를부어서봉남에게권하고즈기도마신후에담빋디를쓸어당기면서천천히말  
이나아온다

「이이봉남아너도그만원과가쇠약하얏구나거년에골절등을아른후로는더욱쇠  
약하야졌다라어제너의아부지의분묘의잡풀을썩노라고갓다왔다니이세사지도  
허리와억기가압흐다나히만아가면공연히마음이안되였다―봉남아너는몸을  
잘가져라아무썩록병안나게몸을가져야하느니라」

봉남은권연스지를화로전에다툽툽털며설혹부디는홀지라도년과를싸라니마사살  
에주름이잡힌모친의나마를치어다보며

「나는항상집을떠나잇구요무엇이던지집안에는어머님이총리디신이닛가혜경  
이나어셔나으면도흐렸만―저도어셔나셔어머님억기가압흐지안도록할깃다고  
늘말함디다」

〔로〕자―그러케생각하는것이용혹무과다마는병이웬잔하야지

〔봉〕그리도요전보다미우나은모양입디다츠츄일기도싸뜻히가고아직절문은히닛  
가

〔로〕자―병이이상호병이닛가날디나으면뜻치마는이이의원의말을드르닛가혜경  
의어면이도그병에죽었다나보더라

〔봉〕하—그런말을함다닛가그러나—

〔로〕그병이그집안문질이안이나—

〔봉〕에—남들이그런말을하나봐요마는혜경이는전연히감기가쇠여서그리된것이  
닛가아무념녀업서요도섭홀타이지요전염이되느니엇져니는지마는실상그런  
병이안이야요보시구려현저혜경의아부지도장스갯흔량반이오또혜경의동성—  
더욱경이말습이오—그이들은폐병겨녕감기한번안이알습데다의원의를말을드러  
보면살사름은하나업습인다하……

〔로〕이이그러케우슬일이안이다

하고담비스디를쌍쌍떨떨면서

〔병중〕에도그병은의셔운병이더라이이너도알깃구나몇히들군슈로단이던더김  
락런이말이다어려져브터너하고늘싸호든그이어면이가폐병으로죽지안이히니  
그러코그이듬히스월애김락런이도또폐병으로죽엇지그사름의이들도거번에역  
시그병으로죽엇다다라다그병으로히셔삼디가멸망하지안이히니그박게도이런  
리약이가만이있다그러셔나는그병은미우삼가지안으면큰일이날줄로안다—  
로부인은담비스디를느코조곰식나안즈며잠잡고듯고잇든봉남의얼골을치어다보  
다가

「실로나도너를보면의론하여보리라하는초이다혜경이가암만히두」

하고또다시봉남의얼골을유심히보며

「엇더케하면도흐나」

하는말에봉남은얼골을들엇더라

〔로〕혜경이를보닛스면엇더나

〔봉〕보닛다니오엇더케보닛요

로부인은눈스동즈가봉남의얼골을쳐나지안이하며

「천딩으로말이다」

〔봉〕천딩으로, 천딩으로보닛셔도섭을식히게요

〔로〕도섭도하지마는좌우간보닛스면—

〔봉〕도섭하는되는강화별장이도와요천딩에는이히들도잇구요, 천딩에서도섭을

식힐것갓호면우리집이도로혀나지요

로부인은서늘하게식은차를마시며잠뜻는소리로

「이이봉남아네가취히니웨알어듯지못하는체하니」

하고봉남의얼골을뚫치안케보며

「니가하는말은혜경이를—천딩으로아조보닐단말이다」

[봉] 보네요 : : : : 아 조 보네요 | 영히 리 혼 혼 단 말 습이 오 냐 가

[로] 이의 말 소리가 너 무 크 지 안 으냐 이의, 리 혼 | 그리 : : : : 리 혼 이 지

[봉] 리 혼 | | 리 혼 | 웨 요

[로] 웨라 니 앓 가 브 러 혼 말 이 무 엇 이냐 병 이 의 셔 운 병 이 라 냐 가

[봉] 폐 병 이 냐 가 : : : : 리 혼 하 라는 말 습 이 구 러 해 경 이 하 고 리 혼 을 히 여

[로] 그 러 타 불 상 은 하 지 마 는

[봉] 리 혼 | | | 리 혼 |

하 고 손 에 셔 밋 그 러 셔 떠 러 지 는 업 권 연 은 화 로 전 에 셔 떠 러 셔 절 로 타 는 연 기 가 무 렷  
〈 하 고 사 면 이 고 요 혼 방 안 에 셔 비 스 소 리 만 쥬 룩 〉 하 야 덧 창 을 치 더 라

● 데 삼 십 삼 회

로 부 인 은 저 절 로 타 는 권 연 연 기 를 지 스 속 에 다 파 르 스 으 면 셔

[이 이 봉 남 아 갑 자 이 이 리 언 말 을 하 냐 가 너 도 놀 나 울 만 하 다 만 는 나 는 발 셔 여 러 날 을  
두 고 성 각 하 다 못 셔 하 는 말 이 다 그 런 줄 이 나 알 어 라 .

[니 가 해 경 에 게 티 하 야 쥬 곱 이 라 도 부 족 혼 마 음 이 있 셔 셔 그 리 는 것 도 안 이 오 너 도  
미 상 불 마 음 에 합 당 하 다 든 터 이 냐 가 무 엇 이 던 지 니 가 하 고 심 허 셔 하 는 말 이 안 이 다  
과 연 병 이 의 셔 운 병 이 냐 가 그 리 지

[봉] 병 은 초 초 나 아 가 요

하 고 한 마 디 를 무 심 히 혼 후 에 저 친 의 얼 골 을 다 시 치 어 나 보 더 라

[로] 이 이 나 의 말 을 쥬 드 러 라 | 해 경 이 가 아 죽 은 쥬 나 앓 는 지 모 루 깃 다 마 는 니 가 의 원  
의 게 드 르 냐 가 그 병 은 한 셔 에 쥬 냐 다 가 도 또 복 발 하 고 추 운 셔 와 더 운 셔 는 번 々 복 발  
흔 썩 안 이 라 폐 병 에 폐 결 히 셔 지 되 었 다 가 다 시 쥬 복 혼 사 름 은 하 나 도 업 디 고 의 원 이  
그 러 케 말 하 드 라 더 라 설 후 해 경 이 가 지 금 은 쥬 냐 다 하 기 로 이 다 음 에 또 복 발 할 것 은  
당 령 하 고 그 동 안 에 또 네 게 도 전 연 될 것 이 당 령 하 다 이 이 봉 남 아 네 폐 전 연 이 되 지 으  
히 를 나 올 지 라 도 또 으 히 에 게 전 연 이 되 지 그 러 면 해 경 이 썩 안 이 라 이 집 주 인 이 되 는  
너 , 또 너 의 으 들 셔 지 폐 병 장 이 가 도 여 다 죽 어 버 리 면 이 집 은 엇 더 케 되 니 리 참 장 집  
은 아 조 멸 망 하 는 것 안 이냐 이 이 너 의 아 부 지 의 정 령 으 로 이 집 이 이 단 큼 되 었 다 가 네  
티 에 셔 그 만 망 하 고 말 더 이냐 그 리 해 경 이 도 불 상 하 고 너 도 미 우 점 쥬 홀 더 이 오 , 나  
도 부 모 가 되 셔 이 런 말 을 하 기 도 다 자 미 가 업 다 마 는 좌 우 간 병 이 의 셔 운 병 이 냐 가  
아 무 리 해 경 이 가 불 상 하 다 혼 들 이 집 주 인 이 되 는 너 과 는 반 곽 쥬 업 는 것 이 오 또 리 참 장  
의 집 이 멸 망 하 는 티 야 비 홀 쥬 잇 니 잘 쥬 각 히 셔 아 조 작 당 을 하 여 버 려 라

잠 잡고 있 셔 듯 던 봉 남 의 마 음 에 는 오 늘 잠 스 간 보 고 온 병 처 의 형 용 이 암 々 하 다  
[봉] 어 머 님 나 는 그 런 일 을 쥬 업 소



[로]웨.....

하고로부인은점점큰소리가나아온다

[봉]어머님지금그리고보면혜경은정말죽습니다

[로]그것은죽을년지모르겠다마는봉남아나는네목숨이앗갑고이리참장집이앗가  
위하는말이다

[봉]어머님그러케나를이지중지할실것갓흐면니마음도얼마큼짐작하여주십시오  
이런말씀을할면엇더케알으실년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실상나는아무리하여도  
그런일은할슈업셔요아직아무경력이업스닛가미흡한것도만이잇겟지요마는그  
러나어머님을소중히알고니게도별양잘못하는것이업슨즉실로아모죄업는것을  
병드릿다고또차보이는법이어딴잇습닛가나는도더히할슈업셔요폐병이라고나  
지말라는법이업슬뿐외에지금나아가는것을이오, 설혹나지안이하고아무리도  
죽는다할지경이라도아무썩륙제쳐두엇다죽게하여주십시오병이피셔우면  
왕래도안이하고조심도할지오엇더케하는지어머님이안심하시도록하지오다만  
리흔치지는아무리하디도나는할슈업습니다

[로]흐흐흐..... 봉남아나는혜경의말만하는구나나는죽어도관계치안코리참장  
의집은멸망하야도호흐나

[봉]어머님은니말만하십니다마는그러케인정업고의리업는일을하고오리살만무  
엇흡닛가인정에버서나고의리를모르고서는결단코집안이잘되는법이업습니다  
결단코리참장집의명에라할것도영광이라할것도업습니다아무리하야도리흔은  
할슈업습니다결단코할슈업습니다

어려운문제가잇슬줄은예탁하엿스나성각보다땡렬한항거를맞는로부인은이전에  
조급하던성미가 가슴에서뒹놀며나마에피스디줄이올르고담비스디든손이별々떨  
리는것을겨우진딩하야잠스간선우숨을치며

[그]그, 그러지말고가만히성각하여보아라네가아직년천히셔세상일을모를  
것이드속담에도그런말이안이잇니작은별네는죽여도큰별네는살녀두라고요  
혜경은작은별네오너리참장집은큰별네가안이나그친딩을디하여셔도티단히  
미안되고혜경이도불상은하지마는병든것이불찰이지남이야무엇이라고말하는  
지리참장의집이멸망하는것보담은나지안으나네가지금인정에버서나느니의리  
가안이니한다마는이런일이이세상에종종하다피초에가법이달너도리흔을하고  
조식을못나아도리흔을하고악한병이잇서도리흔하는것이이세상의법례인디조  
곰이라도인정에버서나고의리가안될것이무엇이나도티체말하면그런악한병이  
잇스면발셔셔의친딩에서다려갈것인디거긔셔야모말을안이하기예니가말하는



봉남은 입살을 닦아 물고 더운 눈물을 흘리며

「어머님 그것은 너무 과합니다」

〔로〕 무엇이 과한단 말이나

〔봉〕 나는 결단코 그러케 불효의 마음은 먹지 안었습시다 어머님께, 제 마음이 더 단히 부족함닛가

〔로〕 그러면 너 가하는 말을 왜 듣지 안이 하는냐 왜 혜경이를 보지 못 하는냐

〔봉〕 그러도 그것은

〔로〕 그리도는 다 무엇이냐 이의 봉남아 처가 소중하냐 부모가 소중하냐 이 집이 소

중하냐 혜경이가 소중하냐 에 세상에 못논 지식도 있다

하고 담비스 디로화로 소견을 타치는 서슬에 티스 목이 부러져 공중으로 튀여가 더니 건너편 장지가 마자 탁썩러 지자 그 장지 박게 사람의 인적이 잇는지라

「누구나 에그리느냐」

「더 더 보가 왔습시다」

하고 장지를 여나 봉남은 먼 보를 밟아 보고 종년은 로부인의 눈총을 맛고 황송히 물너가 기까지 불과 이분 동안이나 모조지 간에 왕리하던 열기가 적이 사라져 혼동안은 모자가 묵々히 말이 읊고 비는 또 폭포갓치 퍼붓는다

로부인은 또 입을 연다, 눈에는 아직 노기가 잇스나 말은 얼다 큰 응용 혼맛이 잇서

〔로〕 이의 봉남아 나가 이러케 말하는 것도 너를 위하셔 그리지 않게는 다만 하나나 썩안

이나 네가 형제를 하고 든 혼손조놈이나 하나 보는 것이 내 락이 닛가 그리지

잠 잡고 생각하던 봉남은 잠간 머리를 들면서

「어머님 좌우간 나도」

하고 먼 보를 더 보이며 또 하는 말이

「이 모양으로 떠날 길이 급히 졌스나 리일은 부득불 떠날야 할 것 습니다 한달 썩지나면 곳 오지 오고 썩지지는 아무 더러도 오늘 밤 말을 하시지 말으십시오 아모런 일이 잇던 지니가 도라 오기까지 지만 참아 주십시오」

● 데삼십오회

그잇흔 날 봉남은 다시 조귀의 모친에게 지지 숨 부락하고 다시 의원을 초조 보고 간절히 혜경의 병치료를 부탁 후 오후다 섯덱차로 인천달은 어둑 캄캄한 편하늘에 걸니 었는 디강

인천 덩거장에서 나린 죽히는 지고 닷새 날 달은 어둑 캄캄한 편하늘에 걸니 었는 디강

화도를 건너 간죽 오르락내리락 할 길은 캄캄한 솔밭속으로 드러가는 지라 다시 언덕하

나를 덤어여 기저귀 웃득 / 혼전 나무가 서커 멧게 공중에 소스 잇난 것을 바라볼척 천

만의 외의 거문고 소래가 들리는 지라 「아아 검은 고를 뜻고 잇나.....」 하고 일변성

각흔즉씨가 녹는듯하야 봉남은 문박게서 눈물을 씻고 드러가니 오늘은 다른 날보다도 더욱 셋굿하듯하고 혜경은 봉남이를 기다리다 못하야 타본지 오린검은 고를내여 늦코 령산회상일장을 과적삼아 타던 초이라

얼골빛이 웨듯치 못하오고 혜경이가 이상히 녀여 문는 말에 못남은 다 만밤이 되어서 그릿타하고 쓰러쳐되 답후에 미리약도가 잇서 기다리고 잇던져 녀상에 혜경은 봉남이와 서로되하야 안젓스나 두사람이 다 먹음마음 업고 혜경은 숨아 / 혼마음을 억제로 진명하야 빙그레우스며 손수 군복단초의 셔러져 가는 것을 못쳐달고 양복술로 군복에 술질을 하는 사이에 말셔 부산막차시간이 되여 부득이하야 니러서는 봉남의 손을잡으며

「령감발셔가셔요」

〔봉〕얼마안되여 곶을 것이니 혜경씨도 어셔도 섭잘히셔 낮기만 바라오

서로 손목을 못들고 마루로나 아온 즉유모로 파는 구두를 바로 노으며 늙은 하라 법은 덩 거장식지나 간다하고 왼손에 손스가 방을 들고 올흔 손에 등스 불을 들고 기다리더라

〔봉〕할멈, 마님도 섭잘히드리게 / 혜경씨, 갖다 곶오리다

〔혜〕아 무쪼록 쌀리도라 오시오

봉남은 머리를 쓰데 /  $\hookrightarrow$  하고 하라 범이 빗최이 는 등스 불빛을 밝으면서 한 십여 보를나

大正元年八月廿七日  
大正二年四月十五日  
大正三年二月十七日  
大正四年二月廿五日

初版發行  
再版發行  
三版發行  
四版發行  
五版發行  
六版發行  
七版發行

定價金四十錢

編譯者 李海朝

京城府安國洞百五十二番地

發行者 金容俊

京城府苑洞二百六番地

印刷者 鄭敬德

京城府苑洞二百六番地

印刷所 朝鮮福音印刷所

京城府安國洞百五十二番地

發行所 普及書館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七番地

總發賣所



振替口座京城七壹二番  
新舊書籍發行

匯東書館

京城府堅志洞五十一番地

廣韓書林

不許複製

增補字典釋要  
 新撰初等歷史  
 新編動物學  
 農業大要  
 養鯉新法  
 桐樹培養法  
 中等算學  
 精選算學  
 論語集註  
 孟子集註  
 小學集註  
 中庸集註  
 大學集註  
 蔬菜栽培全書  
 接木新法  
 日韓會話辭典  
 日語雜誌  
 土地測量術  
 進明彙論  
 初等外國地理  
 初等本國略史  
 動物學問答  
 精選萬國史

(解並)

全一冊 金八十錢  
 全三冊 金五十錢  
 全一冊 金四十錢  
 全一冊 金三十錢  
 全一冊 金十五錢  
 全一冊 金十錢  
 全二冊 金一圓五十錢  
 全二冊 金七十錢  
 全一冊 金一圓  
 全一冊 金一圓  
 全一冊 金一圓  
 全一冊 金一圓  
 全一冊 金二十五錢  
 全一冊 金二十五錢  
 全一冊 金十五錢  
 全一冊 金四十五錢  
 全一冊 金四十五錢  
 全一冊 金三十錢  
 全一冊 金一圓三十錢  
 全一冊 金八十錢  
 全一冊 金六十錢  
 全一冊 金三十五錢  
 全一冊 金二十八錢  
 全二冊 金四十五錢  
 全二冊 金二十三錢  
 全一冊 金六十錢

萬國事物記原歷史  
 國文農法  
 簡明物理學  
 人東風雅  
 古文略選  
 新撰諺文家庭簡  
 家庭日用寶鑑  
 現行法令新編  
 新撰家庭學  
 朝鮮全圖  
 感義小說江上月  
 哀情小說碧芙蓉  
 義俠小說錦囊二山  
 寫情小說秋月色  
 悲劇小說百年恨  
 奇聞美談青野彙編  
 偵探小說波濤上船  
 忠義小說水滸志前集  
 懸吐註解女子寶鑑  
 刪正五倫行實

全一冊 金六十錢  
 全一冊 金十七錢  
 全一冊 金三十錢  
 全一冊 金二十五錢  
 全一冊 金五十錢  
 全一冊 金三十錢  
 全一冊 三十錢  
 全一冊 金五十錢  
 全一冊 金三十錢  
 全一冊 金四十錢  
 全一冊 金五十錢  
 全一冊 金二十錢  
 全一冊 金四十錢  
 全一冊 金二十錢  
 全一冊 金四十五錢  
 全一冊 金二十五錢  
 全一冊 金三十錢  
 全一冊 金三十錢  
 全一冊 金二十五錢  
 全三冊 金一圓二十錢  
 全二冊 金五十錢  
 全一冊 金四十錢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七番地

總發行所

滙東書館